축산물 소비 트렌드 인사이트

2026년 3월

ANIMAL PRODUCTS DATA TREND INSIGHT

01 축종별 판매 및 소비 02 지역별 소비자 가격 정보 03 축산물 유통 트렌드

축산물 소비 트렌드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조합마트 3천 여 개소의 축산물 POS 데이터, 소비자 3천명의 실제 소비 및 구매 감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www.ekapepia.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축산물품질평가원

'26년 2월 판매 동향

*전월 대비 판매량

소고기	▲ 79.4%
돼지고기	▲ 10.4%
닭고기	▼ 4.9%
계란	▼ 4.6%

주요 부위 가격 정보

*'26년 2월 소/돼지 100g, 닭 1kg, 계란 특란 30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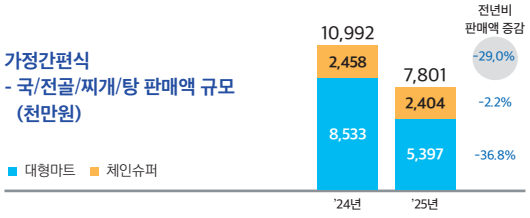
소 : 등심 1등급	9,946원	▼ 2.1%
돼지: 삼겹살	2,646원	▼ 0.2%
닭고기: 육계	5,938원	▲ 0.2%
계란	6,561원	▼ 7.3%

소비자 인사이트: 가정간편식-국/전골/찌개/탕 POS 소비 시장 분석

✓ '25년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기반 국/전골/탕/찌개 판매는 전년 대비 29.0% 감소했으며, 대형마트(-36.8%)와 체인슈퍼(-2.2%)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형마트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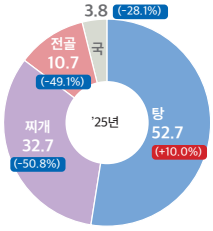
✓ 탕류 비중이 52.7%로 전년 대비 판매액이 증가(+10.0%)한 반면, 찌개와 전골은 비중이 각각 32.7%, 10.7%로 축소되며 유형별 구성 변화가 나타남

가정간편식 - 국/전골/찌개/탕 판매액 규모 (천만원)



최근 1년간 타입별 판매액 비중 (%)

*( ) 전년비 판매액 증감(%)



✓ 축종별로는 돼지고기 47.3%, 소고기 28.5%, 닭고기 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축종혼합제품)는 0.4%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5년 축종별 판매액 비중 (%)

돼지고기 47.3% -41.7% | 소고기 28.5% -19.0% | 닭고기 23.8% -1.0%

✓ 세부 분류별 상위 TOP3는 부대찌개 32.7%, 갈비탕 23.7%, 삼계탕 21.3%로 판매가 되었으며, 뒤를 이어 곱창전골 (6.9%), 감자탕(4.7%), 순대국 (3.4%), 불고기전골 (1.6%), 닭곰탕(1.6%) 순으로 확인됨

✓ 부대찌개(-50.8%) 감소가 전체 하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갈비탕(+16.6%)은 1인 식사로 비교적 자주 소비되는 메뉴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25년 세부 분류별 TOP 3

부대찌개 32.7% -50.8% | 갈비탕 23.7% +16.6% | 삼계탕 21.3% -6.6%

✓ 상위 5개 제품 중 4개가 부대찌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제품 유입과 기존 제품 하락세가 보임. 비비고 갈비탕 400g이 전체 점유율의 6%를 차지하며 판매액 1위 제품으로 확인됨

'25년 판매액 상위 5개 제품

순위	제품명	'25년 판매액 점유율(%)	전년비 판매액 증감(%)
1	(CJ제일제당) 비비고 갈비탕 400g	6.0	22.6
2	(미가인F&B) 미가인 의정부식 부대찌개 750g	5.6	-37.2
3	(PB) 송탄식 부대찌개 775g	4.8	NEW
4	(PB) 칼칼한 의정부식 부대찌개 705g	4.2	-9.3
5	(뉴푸드) 10MIN 의정부 부대찌개 1290g	3.7	NEW

Source: 대형마트, 체인슈퍼 POS 데이터의 12월을 끝으로 하는 최근 1년간의 판매 금액 합계, 가정간편식=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활용한 갈비탕, 곱창전골, 내장탕, 닭곰탕, 부대전골, 부대찌개, 불고기전골, 뼈해장국, 삼계탕, 소고기전골, 순대국에 한함 / ㈜Market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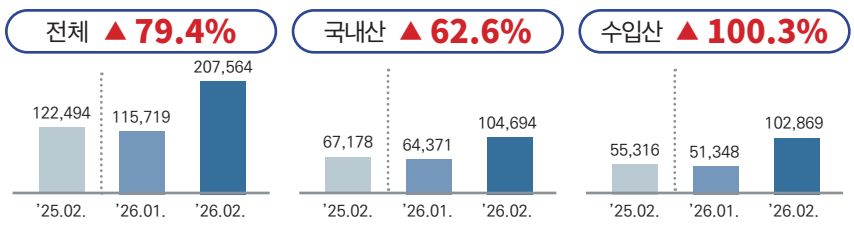
소고기

01. 축종별 판매 및 소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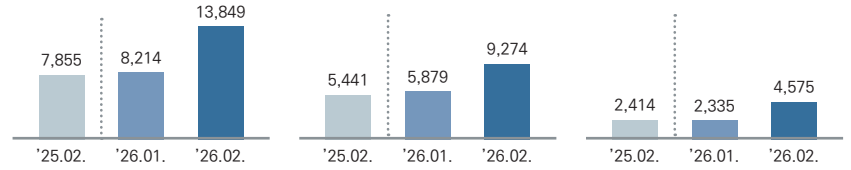
소고기 판매 동향 (POS 데이터)

✓ '26년 2월 전체 소고기는 **전월 대비** 판매량은 79.4%, 판매액은 68.6% 증가하며 설 명절 선물세트 수요 확대로 국내산을 중심으로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산 판매 역시 확대됨

판매량 [단위: kg, 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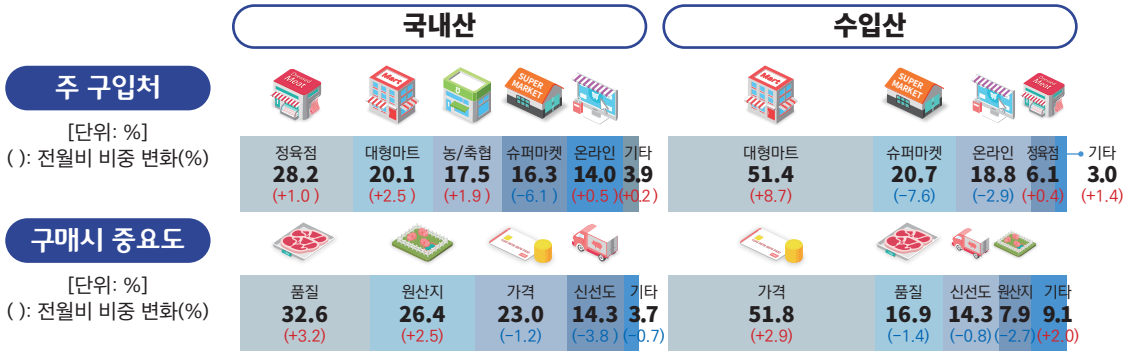
판매액 [단위: 백만원, 일평균]



소고기 소비 동향 (패널 데이터)

✓ 설 명절 수요 영향으로 국내산은 **정육점·대형마트·농축협** 중심 구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매 시 고려 기준에서는 **품질** 중요도가 상승한 반면 신선도 중요도는 다소 낮아지며 명절 상차림이나 선물용 등 용도 중심의 구매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수입산은 **대형마트** 중심 구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슈퍼마켓과 온라인 비중은 축소됨. **가격** 중요도는 상승하며 여전히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모습임



소비자 가격 [단위: 원/100g] (국내산, 1+ 등급 기준)

등심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12,893	11,057	12,099

안심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18,336	13,742	13,963

설도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5,875	4,444	4,602

양지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9,577	6,007	5,435

※ 축산물 소비정보 분석_26년 2월, ㈜ MarketLink/ 소비자 가격_축산유통정보 가격정보 참고

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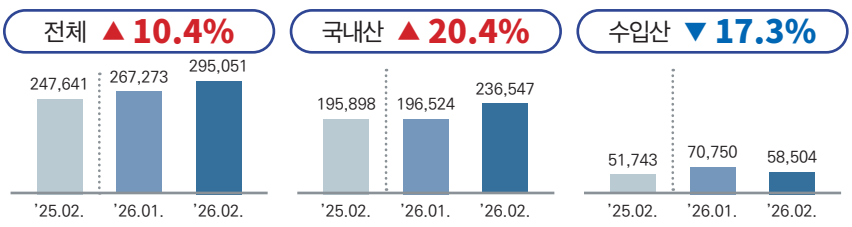
01. 축종별 판매 및 소비 정보

돼지고기 판매 동향 (POS 데이터)

✓ '26년 2월 전체 돼지고기는 **전월 대비** 판매량은 10.4%, 판매액은 10.6% 증가하며 설 명절 수요 확대로 국내산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산 판매는 감소하며 국내산 선호 경향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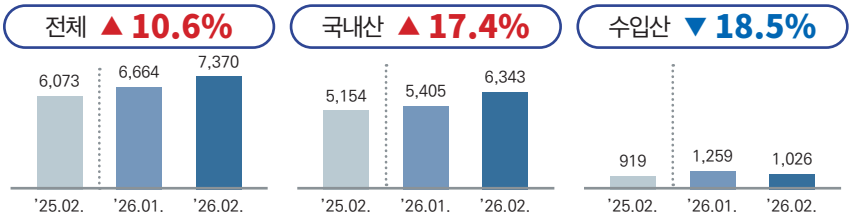
판매량

[단위: kg, 일평균]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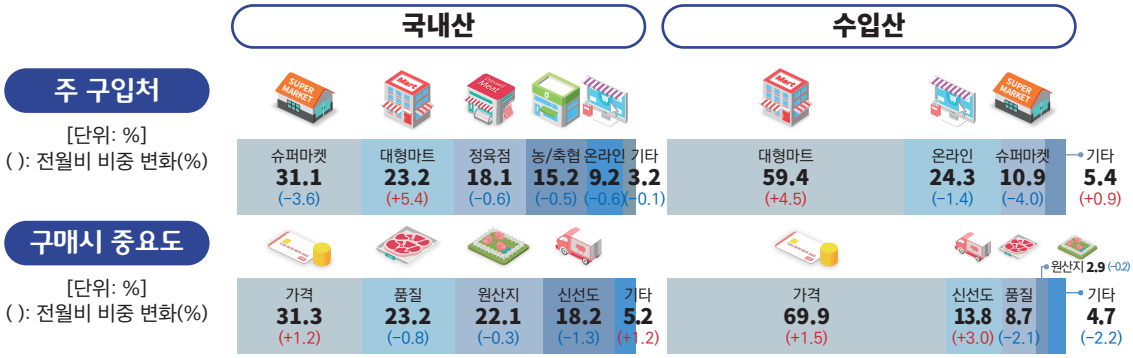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일평균]



돼지고기 소비 동향 (패널 데이터)

✓ 국내산 돼지고기는 **슈퍼마켓** 중심 구매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 수요 영향으로 **대형마트**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구매 시 고려 기준에서는 **가격** 중요도가 상승하며 여전히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함

✓ 수입산은 가격 비교와 접근성이 용이한 **대형마트** 중심 구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임



소비자 가격

[단위: 원/100g]
(국내산 기준)

삼겹살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2,740	2,529	2,698

목심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2,735	2,288	2,438

갈비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1,688	1,535	1,526

앞다리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정육점
	가격	1,611	1,501	1,544

※ 축산물 소비정보 분석_26년 2월, ㈜ MarketLink/ 소비자 가격_축산유통정보 가격정보 참고

가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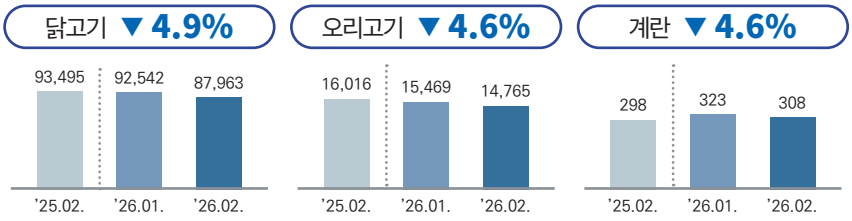
01. 축종별 판매 및 소비 정보

닭고기·오리고기·계란 판매 동향 (POS 데이터)

- '26년 2월 닭고기와 계란 판매는 **전월 대비** 닭고기 판매량과 판매액이 각각 4.9%, 16.1% 감소하였으며, 계란 역시 판매량 4.6%, 판매액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오리고기도 판매량과 판매액이 각각 4.6%, 6.4% 감소하며 설 명절 소비가 소·돼지고기에 집중되는 가운데 가금류 전반의 판매 감소 흐름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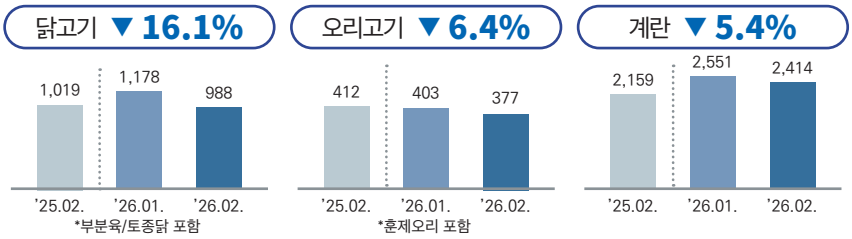
판매량

[단위: kg, 일평균 / 계란 천개, 일평균]



판매액

[단위: 백만원, 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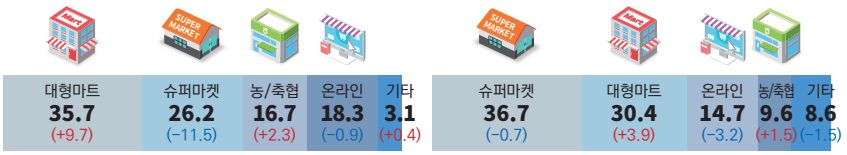


닭고기·계란 소비 동향 (패널 데이터)

- 닭고기는 **대형마트** 중심 구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슈퍼마켓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남. 구매 시 고려 기준에서는 **가격** 중요도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선도와 브랜드 중요도가 상승함
- 계란은 **슈퍼마켓** 중심의 안정적인 구매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절 장보기 수요 영향으로 대형마트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구매 시 고려 기준에서는 **가격** 중요도가 상승하며 여전히 주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모습임

주 구입처

[단위: %]
( ): 전월비 비중 변화(%)



구매시 중요도

[단위: %]
( ): 전월비 비중 변화(%)



소비자 가격

[단위: 원/1kg]

육계 (kg)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가격	6,891	5,938

계란 (특란 30구 기준)	판매처	대형마트	슈퍼마켓
	가격	6,623	6,525

※ 축산물 소비정보 분석_26년 2월, ㈜ MarketLink/ 소비자 가격_축산유통정보 가격정보 참고

02. 지역별 소비자 가격 정보

- ('26년 2월 기준) 8대 특·광역시 소고기 등심, 돼지고기 삼겹살, 닭고기 육계 소비자 가격 정보
- (전국 기준 평균가) 소고기 등심: 10,064원 / 돼지 삼겹살: 2,657원 / 육계 평균가: 5,867원

소고기: 등심
[단위: 원/100g]
(국내산, 1등급 기준)

대구	부산	울산	세종	인천	서울	광주	대전
9,317	9,495	9,633	9,844	9,995	10,064	10,653	10,944

돼지고기: 삼겹살
[단위: 원/100g]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서울	인천	광주
2,592	2,596	2,612	2,625	2,644	2,657	2,700	2,711

닭고기: 육계
[단위: 원/1kg]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서울	부산	인천	세종
5,214	5,252	5,617	5,867	6,007	6,231	6,318	6,595	6,750

* '26년 2월 소비자 가격_축산유통정보 가격정보 참고

03. 축산물 유통 트렌드

축평원, 온라인 유통 축산물 신뢰 높인다… DNA 동일성 검사 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월 25일 세종 본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와 함께 '온라인 유통 축산물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함. 급성장하는 온라인 축산물 시장의 이력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됨
-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이력관리 자율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가 논의됐으며, 평가원은 3~8월 집중 모니터링과 단계별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자율 점검과 취약요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입점업체는 인증제·인센티브·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평가원은 기술 지원과 DNA 검사·안돈(Andon) 프로세스로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임
- 박병홍 원장은 "온라인 축산물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이력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참고기사: 식품저널, 2026.03.04

농식품부, '돼지 생산관리 인증' 올해부터 시범운영

<돼지 생산관리 인증 개념>



- 농림축산식품부는 QR코드를 통해 돼지고기의 품종과 육질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품종과 사육 방식 등이 차별화된 농장을 생산 단계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의 돼지고기는 별도로 유통될 예정임
-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생산성을 중시한 3원 교잡종(YLD·LYD)이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어 고품질·차별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농식품부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품질관례 체계를 갖춘 농장을 인증, 이후에도 DNA 검사와 유통 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겹살의 과도한 지방 문제 개선과 육질 차별화를 위해 생산 단계 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함

*참고기사: 연합뉴스, 2026.03.03

축산유통정보 정육점 홍보 쉽게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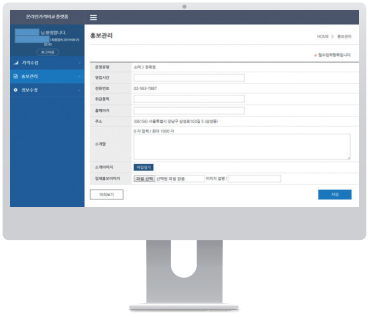
01. 점포 홍보 자료 준비하기



정육점 홍보 화면을 만들기 위한 준비

- 회원가입
- 대표품목
- 내/외부 사진
- 세트상품
- 매장 특장점
- 할인행사

02. 점포 홍보자료 등록하기



사이트 접속

ekapepia.com/v3/web/main.do

⬇

로그인

정육점 판매 가격 입력 ➡ 메뉴-홍보관리에서 등록

03. 축산유통정보 '여기고기'에 점포 홍보



연간 4.6백만명이 방문하는 축산유통정보
홈페이지 및 앱 '여기고기' 메뉴에서
소비자들에게 점포의 특장점 등의 홍보 가능



축산물품질평가원